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 공존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AUTUMN  
2024 Vol. 69

## 한국에 살아요

YB 기타리스트  
영국 출신 스캇 할로웰

## 현장특독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출입국 사람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출입국 이야기

## 한국생활 사랑방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화성시환경재단 에코센터



공  
존  
하  
는

시  
선



작가명 : ZHANG WEN YING(장문영)

작품명 : 범어사 가을풍경

\*2023년 세계인의 날 기념 제1회 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마주하며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고 다가올 미래를 기대합니다.

슬픈 기억, 힘든 기억들 모두 잠시 내려놓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기쁨을 나누어 보세요.

지금, 함께 행복해지는 일, 공존입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찌는 듯한 무더위가 물러가고 솔솔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우거진 녹음이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는 완연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지난 한가위 명절, 자주 만나지 못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가을을 맞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도  
한가위 보름달만큼 풍성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8월 12일, 우리 본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벽찬 감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날인 8월 13일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중앙-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본부는 외국인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지역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밀접하게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맞아  
내·외국인 승객의 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국심사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편리한 출입국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공존'과 함께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ear readers,  
As the sweltering heat recedes and a cooling,  
pleasant breeze ushers in the vibrant colors of autumn,  
we can truly sense the arrival of fall.

I hope you enjoyed quality time with family and loved ones  
during the Chuseok holiday. With the change of seasons,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has a bounty of updates  
to share, as plentiful as the harvest moon.

On August 12, the KIS held a nationality conferment  
ceremony for the descendants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in commemoration of the 79th Liberation Day.  
We were deeply moved to welcome the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as new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honoring the noble sacrifices and dedication of their forebears.

The following day, August 13, we held a meeting with the vic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discuss the facilitation of region-  
based immigration policies. In the meeting, the participants  
exchanged diverse views on developing immigration policies  
tailor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each region,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the lead agency for immigration policy, we will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o ensure they can secure  
necessary foreign workers and implement policies that help them  
become contributors to the growth of local communities.

In anticipation of increased travel during the holiday season,  
we reassessed potential inconveniences for both Korean and  
foreign passengers using immigration systems in airports.  
To minimize their inconveniences, we visited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o promote a range of immigration  
procedures available to travelers, including Smart Entry System  
(SES),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ystem.  
We will continue to improve our services by collecting  
diverse feedback and addressing any issues to provide  
even more convenient immigration services.

As 2024 draws to a close, we remain committed to implementing  
immigration policies that make a perceivable difference in the  
lives of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residents. Lastly, given the  
significant temperature fluctuations, please take care of your  
health. I wish you and your families peace and happiness.  
We sincerely appreciate the continued support of our readers.

# Contents

## 공 이 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Autumn / Vol. 6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http://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http://www.facebook.com/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4년 9월 30일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주) 1566-7699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People +

06

### 한국에 살아요

국민 밴드 YB의 기타리스트,  
영국 출신 스캇 할로웰

12

### 출입국 돋보기

사랑과 나눔의 전도사  
이민자 네트워크

16

### 현장 특특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Place +

20

### 출입국 사람들

K-직장인은 처음이라  
즐거운 수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출입국 이야기!

24

### 마이 코리아

외국인 최초  
최우수 한국어 교원 수상  
바이마간베토바 딜바르

26

### 출입국 인포

출입국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28

### KIS News

## Play +

30

### 한국생활 사랑방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에코센터에서 배우보세요!

34

### 풍경속으로

포교를 위해 한반도 땅을 밟은  
선교사들의 흔적

38

### 내 손안의 KIS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39

### 출입국 엽서

'KIS 1345' 로 물어보세요!

40

### EVENT

사진 공모 & 공감 & 퀴즈 타임



화가의 꿈을 꾸던  
영국 청년,  
국민 밴드 YB 멤버가  
되기까지

영국 출신 기타리스트  
**스캇 할로웰**



영국 출신 스캇 할로웰은 2011년 발매된 YB의 미니앨범  
 흰수염고래를 기점으로 정식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다.  
 벌써 10년 넘게 대한민국 대표 록 밴드인 YB와 함께하고 있는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 본다.



## : Scott Hellowell

### 2002 월드컵, 한국을 만나다

2002년 한일월드컵. 월드컵 사상 아시아 최초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한국은 열광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었고 뜨거운 축제 분위기가 전국을 휩쓸었다. 많은 외국인이 세계적인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했던 그때, 잉글랜드 북부 프레스턴 출신 스캇 할로웰 역시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 풍경 사진 하나 제대로 본 적 없고 한국 문화와 정서는 생소할 따름이었던 영국 청년에게 한국의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축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한국인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사교적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길에서 쉽게 친구처럼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의 웅장한 느낌도 기억에 남아요. 하늘까지 뻗어있는 고층빌딩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이 도시의 역동적인 분위기에 압도될 정도였죠.”

어린 시절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알게 된 스캇은 오랜 기간 태권도 사범으로 일한 바 있다. 평소 영국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던 그는 태권도로 익숙했던 한국에서 1년 정도 살아보기로 결심했고 2002년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된다. 애초에 1년살이로 계획했던 한국행이지만, 한국의 매력이 그리웠던 것일까. 이후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과의 추억을 키워갔다.

2011년, 그의 한국 생활에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바로 YB 신규 멤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예술 분야에 다재다능했던 스캇은 15살 때부터 친구들과 종종 즉흥 기타 연주를 할 정도로 음악을 즐겼다.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기타 역시 취미로 즐겨왔지만 전문 기타리스트로서 뮤지션의 길을 걷게 된 건 2011년부터다.

“2002년 한국에 살 때는 다른 활동에 전념하고자 기타를 그만둘까도 고민했어요. 발을 다치면서 오히려 기타 연주에 시간을 더 쏟게 되었죠. 홍대에서 만난 연주자들과 다양한 공연을 즐기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YB를 만나게 되었죠.”

스캇이 처음부터 YB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음악을 하는 친구들과 만나 공연을 하고 친분을 쌓았는데 그 가운데 YB도 있었다. 서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재미 삼아 YB 공연에서 몇 곡을 함께 연주하면서 호흡을 맞추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다.

한국 생활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그만큼  
특별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 뮤지션의 길을 걷다

YB와 함께하면서 스캇은 특별한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 푸른 숲속 고즈넉한 사찰에서 열린 작은 콘서트, 수많은 팬의 함성으로 가득찬 경기장의 웅장한 무대, 음악을 향한 뮤지션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홍대 클럽에 이르기까지. 그가 10년 넘게 한국에서 뮤지션으로 걸어온 여정 곳곳에는 동료 뮤지션들 그리고 팬들과의 추억들이 빼곡하게 수놓아져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서 펼쳐진 무대를 비롯해 모든 공연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말하는 스캇.

어느덧 한국살이 20년을 넘긴 그는 코로나 대유행을 겪던 시기에 BMX 자전거를 타고 달렸던 텅 빈 서울 도심의 밤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항상 사람과 차로 꽉 차 있던 곳이 그렇게나 텅 비어있는 모습은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BMX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서울 도심을 돌아다녔죠. 차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광화문 대로를 따라 내달리며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스캇은 포스트 펑크 정신이 깃든 인디음악을 추구한다. 가장 좋아하는 사운드로 70년대와 80년대의 빈티지 드럼 머신과 신시사이저 사운드를,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장르로는 클래식 일렉트로와 디스코를 접목한 음악을 꼽는다. 그러면서도 YB 활동을 하며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한다. 기교가 뛰어난 기타리스트는 아니라며 스스로를 낮추는 스캇은 자신의 연주 스타일에 대해 직접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전달력 있는 연주라고 말한다. 그는 음악의 매력에 대해 “같은 곡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이 전달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악은 듣는 사람의 경험과 추억이 함께 어우러져 궁극적으로 그만의 인생 드라마 사운드트랙으로 재탄생한다고 생각해요. 경험과 추억이 음악과 함께 기억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한국생활을 즐기고 있는 스캣이지만, 그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피해 갈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빠르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서울의 생활 환경은 생소했다. 그렇다고 영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가 느낀 서울 생활의 매력은 사람들이 차이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화합하는 데 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욕구와 소망을 가지며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 나가야 함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삶에 설렘을 주는 무언가가 생기면 다른 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체계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한국 친구들과 저는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에 놀라곤 해요.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 인생 최고의 무대로 기억될 한국

영국에서 순수미술을 공부한 스캣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는 중에 YB를 만나 뮤지션이 되었다. 몇 년 동안은 밴드 활동이 워낙 바빠 잠시 미술을 멀리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화가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그만큼 한국 생활이 편하고 행복해졌다는 뜻이다. 스캣은 지난 한국 생활을 인생 최고의 시절이라 회고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특별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한국 생활이 만족스러웠던 건 아니다. 친인척 없는 한국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하지만 그간 인연이 되어 준 많은 지인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 생활에 너무나도 만족한다고 말한다.

“항상 도움을 주고 지지를 보내주는 YB 멤버들, 언제든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소속사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헌신적으로 감동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YB 팬들, 더불어 저의 한국 생활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객원 멤버로 시작해 국민 록 밴드 YB의 기타리스트로 거듭나기까지. 스캣은 바람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기 꺼리던 영국 청년이 이젠 다양한 한국 메뉴에 완벽 적응했다. 이제는 오히려 영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시 적응해야 한다며 웃어 보이는 스캣 할로웰. 앞으로도 그에게 한국은 아티스트로서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무대이길 응원한다. 🍀

# A British Young Man's Journey: From Aspiring Artist to Member of the National Rock Band, YB

## **Would you give our readers a brief introduction of yourself?**

I grew up in a place called Preston in the North of England. I'm a guitarist in the Korean rock band, YB. My first visit to Korea was for one year in 2002 during the World Cup. After that, I came back to visit often, and finally ended up living here from 2010.

## **What would you say triggered a chain of events that brought you to Korea? Also,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Korea like?**

Back in 2002 I was living as an artist, and also training and teaching Taekwondo. I wanted to have an experience living outside the UK, and naturally was curious about Korea because of Taekwondo. So one day I suddenly decided to live for a year in Korea. When I arrived, I had never even seen a photo of the streets of Seoul, so everything was completely new to me. I felt people were kind, and very social, and also was overwhelmed at how endlessly large Seoul city is.

## **When did you join YB? What was your life like in Korea before you joined the band?"**

Just before I joined YB, I was painting and teaching art, and visiting Korea occasionally. During my visits, I connected with musicians and old friends, and eventually made a friendship with the band, including coming up on stage for a couple of songs for fun. After doing that many times, it naturally led to me joining the band and moving to Korea to live. I've been playing with the band for over 15 years now.

## **You've also worked as an art teacher and English teacher. What was your major or specialty? How did you get into band activities and the music scene at large?**

I studied Fine Art in university in England, in the UK there are no 'majors', we just specialize in the subject purely, so for me it was painting, including photo-realism and other concepts. As I had been teaching Taekwondo for years, it was a small jump to teaching English in Korea for a year. After that, I came back to the UK and obtained a Post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and began teaching art. Meanwhile, since the age of 15, I was playing guitar every day for fun, and used to love jamming with friends. During 2002, when I was living in Korea, I thought about quitting guitar to focus on art

and Taekwondo more, but then I fractured my foot badly. In the end I played more guitar and got involved in the band scene in Hongdae, meeting other players and having fun at gigs.

## **What challenges and inconvenience have you faced while living in Korea? Have the Korean food and culture suited you well enough?**

The food has mainly been good for me here, but it took a while to adjust to it. I think a lot of people fear trying new foods in the UK, so the visual difference makes it sometimes hard to just dive in for some people. I don't eat seafood so that can be problematic in choosing a restaurant or menu sometimes. I think since I have lived here for around 15 years, I have somehow adopted the culture to the point where I have to 'adjust' to the UK when I go back home for a visit! I think I got used to many things here, and of course friendships transcend culture.

## **Please share some of your most rewarding and/or enjoyable memories in Korea.**

Of course most of my best memories are with the band, from playing concerts in remote beautiful temple settings, to stadiums and Hongdae clubs. Having all those experiences with the band there made them entirely complete. Sharing the hardships and successes, and enjoying the stage can't happen without the support and help of each member. It's important to mention the fans too, who have been with us in all the stages of our career. They are the ones who make the whole experience a reward. Also being able to contribute something by doing our best for peace, by playing in North Korea, actually gave me a new perspective on living in Seoul and seeing another side of Korean culture, and appreciating my life here.

## **What were some of your difficulties in getting used to the changes?**

Every country has cultural 'systems' of doing things, you can't possibly know how that works until you've experienced it more than a few times. So quite often I just needed someone to explain what was happening and when, so that I could kind of adjust my expectations of what I have to do. Literally from how meals are cooked in restaurants to working in the music industry.

**Scott Hellowell Ryan, a British musician, found his place in the heart of Korean rock as a guitarist for the YB band, joining them in 2011 with the release of their mini album “Blue Whale”. We covered his interesting life journey, tracing his path from a young man with dreams of becoming an artist to his eventual settlement in Korea. Stay tuned to discover how living in Korea has shaped his career as a guitarist and influenced his attitude towards life.**

**How would you summarize your life in Korea so far in one short phrase?**

A rollercoaster of being hectic, busy, and nuts, to pure fun, enjoyment and some of the best times in my life.

**Please tell us about one of the most memorable events or slice of life you've had while living in Korea.**

A personal experience I'll never forget, is during the pandemic, when the streets were completely abandoned at night; I used to ride BMX all over the city for hours, and could experience things I'll never see again now that the city is back to full hyper-busy capacity on the roads. Like riding through Gwanghwamun main road, without a single car driving there, being able to ride through empty streets and look up at buildings and see Seoul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I'll never ever forget that experience of Seoul.

**What do you think are the biggest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K based on your personal experience?**

The way people perceive work is different, and of course personal space since people live more closely packed in Seoul. It's a weird thing, but I don't compare them too much, since some things are obviously going to be different. I think for me the main attraction to living in Seoul has been how people overcome differences and eventually realize they're all human, and have the same needs, desires and necessity to communicate and listen to each other. I think it's more interesting to see when something inspires a person, and they expand their life experience by spending time together. Most of the time, with friends in Korea, we end up laughing about how we feel the exact same about things, despite our completely different upbringing.

**What kind of music would you like to make? How do you want people to feel about your music?**

I think my natural way to make music is indie, in a kind of post punk ethos, but thanks to the band, I've managed to experience playing more styles and genres. I'm not a very technical guitarist so I've always leaned more into the idea of being very direct and simple, and expressive. At least in that framework, I think it's more possible for people to directly access the emotion, point and feeling. Ultimately your

music should eventually become the soundtrack to other people's lives, so they will take it and have their own original experiences and memories with it. In terms of personal music that I sometimes like to make, it's a kind of mix or classic Electro and Disco. I love the sounds of vintage drum machines and synths from the 70's and 80's a lot.

**What are some of the things you'd like to do in coming years, and what goals do you have in mind?**

I always have a plan to do some art and make an exhibition here! Since the band have been so busy over the years, it's been difficult to do everything, but these days I did actually start painting again. I'd love to produce more art and maybe some electronic music in the coming years.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those who have been kind to you during your life in Korea?**

Firstly I'd like to thank every member of YB and also our company, who are all lovely people. They have supported me through the hard times and good times, so I owe them a great debt of thanks. Also, nothing would be possible without the support of YB's fans, they're dedicated, kind and amazing, and all-important in this ecosystem; we are nothing without them. In other areas of my life, there have been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people who have helped me living in Seoul, too many to mention, but it would be nice to say thanks to them too.

**Lastly, with the Korean Wave fever, Korean content is gaining popularity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more and more foreigners are seeking professional training in K-pop. You have played a pioneering role for foreigners who wish to learn K-pop professionally and engage in related activities in Korea. Could you offer some advice to those who dream of following a similar path?**

I respect K-pop, and all the hard work that goes into it, but it is not a genre that I really consume. My advice to people is to be creative with your inspiration, whatever it is. And the Korean culture has more depth and other music than big industry K-pop. Seek that out and find new and unique things by yourself, and with others.

# 사랑과 희망의 전도사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이민자 네트워크



## 이민자 네트워크란?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청·사무소)에서는 2007년부터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이민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조모임으로 초기에는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되었으나, 2013년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 등 전체 이민자로 회원 자격을 확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 및 이민자 사랑방 등에서 이민자 대상 통역지원, 민원안내 도우미 자원봉사
- 취약계층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외국인의 체류지원, 생활지도, 고충상담 등 멘토링
-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나눔문화에 동참
- 한국문화 및 역사탐방을 통해 지역사회 적극 참여 지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세계음식 문화 체험’



제17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세계 음식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과 모국의 음식(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 네트워크 ‘환경예술활동 전시회’



동·식물 등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색연필로 그리는 지구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민과 이민자의 문화교류와 상호이해 기회를 마련했다.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외국인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세 명의 회원을 만나 본다.



### 정 벤자마트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23년 만났던 필리핀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하게 되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성년이 되면서 비자가 말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필리핀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말도 통하지 않아 힘들어 했습니다. 아직도 간절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던 그 얼굴이 잊히지 않아요.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요청했고, 결국 받아들여져 지금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리던 모습에 저 역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1997년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 기업에 취업한 정 벤자마트 씨. 한국에서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2018년, 폐암으로 남편을 보내고 현재는 남편의 고향이었던 인천에서 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굴곡 많은 한국 생활을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낸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벤자마트 씨는 “한국에 입국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언어였다”고 말하며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통역 봉사과 멘토링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 전예진

“인간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얻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혼자였다면 낯선 한국 생활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다양한 이민자들에게 연대감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민자 네트워크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먼저 어려움을 겪은 이민자 선배로서 애로사항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민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이민자들과 어르신들 모두 특별한 지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 한 번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민자 네트워크는 언제나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공감을 건넬 수 있는 커뮤니티로 남아있을 겁니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담없이 이민자 네트워크를 찾아주세요~!”

2009년에 친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에 오게 된 전예진 씨.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환상적이고 멋진 한국 생활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 낯선 환경 등 수많은 난관을 주변의 도움으로 이겨낸 그녀에게 한국은 두 번째 고향이다. 2019년 친구의 소개로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한 전예진 씨는 “봉사 활동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며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른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베트남어 통역과 안내는 물론, 소규모 워크숍과 지역 어르신 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면 벅찬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 이유진

“이민자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저는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서로 나쁜 마음이 없음에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소통의 부재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내 문화, 나의 감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해 보는 배려의 마음이 성공적인 이민 생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상대의 수고를 짐작해 보는 배려가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통한 사색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사색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 창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민자 네트워크는 여러분에게 친절과 환대로 행복을 선물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주에서 20년 동안 정신건강 간호사로 일했던 이유진 씨는 2018년 아버지가 몸이 점점 쇠약해지셔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 7월 아버지께서 영면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아버지와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한국에 입국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시기,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러 인천출입국사무소(현 인천출입국·외국인청)를 방문한 그녀는 환한 얼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던 이민자 네트워크 봉사자의 모습을 보고 봉사를 결심했다고 회고한다.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어가 서툰 그녀에게 선뜻 다가와 준 봉사자처럼 그녀 역시 어려움을 겪은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자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영어 통역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유진 씨는 다양한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 중에서도 “이민자 여러분의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 말한다. 낯선 환경을 마주한 이민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주요 임무라는 것이다. 그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민자들에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면서 행복의 길을 열어 나가자”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 Ambassadors of Love and Hope

## Immigrant Networks: Spearheading the Spread of a Culture of Sharing



### What is the Immigrant Network?

Since 2007, a total of seventeen regional immigration offices across South Korea have been operating sub-networks of immigrants, collectively known as the Immigrant Network. The Immigrant Network is primarily composed of immigrants who hav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Initially formed by marriage immigrants, the Immigrant Network, organized as a self-help group, expanded its membership in 2013 to include 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workers, and other immigrants. Its mission is to support immigrants in becoming valued members of Korean society, thus contributing to social integration.

### Activities of the Immigrant Network

- Volunteer as interpreters and guides in immigration office reception areas and immigrant community centers nationwide
- Provide mentoring, including residency support, life guidance, and grievance counseling for vulnerable groups s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foreign-born immigrant children
- Participate in community service at nursing homes,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and other charitable organizations
- Promote active community engagement through exploration of Korean culture and history



#### Incheon Immigration Office Immigrant Network 'World Food Culture Experience'



To commemorate the 17th Together Day, the network in Incheon operated international food stalls introducing cuisines from Thailand, Vietnam, Uzbekistan, and other countries to local residents.

#### Ulsan Immigration Office Immigrant Network 'Environmental Art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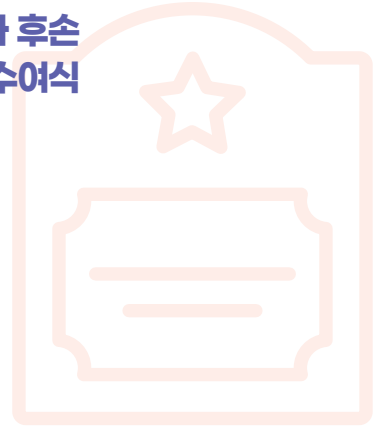
The network in Ulsan organized an art exhibition titled "Earth's Tears Drawn with Colored Pencils" to raise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animals, plants and the environment. This event fostered cultural exchange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local residents and immigrants.

# 우리도

##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유도 은메달을 딴 허미미 선수가 독립유공자 허석 선생의 후손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다. 법무부는 2004년부터 일제강점기 민족의 국권 수복을 위해 여러 민족운동을 전문적으로 펼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인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외국 국적자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열린 올해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는 독립유공자 14명의 후손 27명이 국적을 부여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 대한민국 국민이 된 독립유공자 14인의 후손

일제강점기 국권 수복을 위해 민족운동에 생애를 바친 독립유공자들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만주나 연해주, 간도 등으로 이주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도 독립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던 이들은 일제의 강제동원, 소련의 이주 정책 등으로 인해 타의로 생활 터전을 옮겨야 했다. 그 결과, 독립을 위해 인생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에는 엄연히 한국인의 피가 흐름에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이에 법무부는 매년 광복절에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예우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14인의 후손 27명(러시아 14명·중국 11명·카자흐스탄 1명·쿠바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 광복절 기념

##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장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박성재 장관은 “오로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누구보다 특별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기둥이 되어 선조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 층 더 높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축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며 환영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에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더해져 새로운 희망을 꽃피울 것이라 믿는다”며 “무한한 성장과 기회의 땅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몽글한 감동과 웃음이 함께한 수여식

환영사와 축하 메시지가 끝나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웠던 독립 영웅, 14명의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다. 독립유공자의 업적을 소개하며 국적을 수여받는 후손의 얼굴이 함께 등장해 몽글한 감동을 선사하는 영상이었다.

독립유공자 강상진 선생의 후손인 키실료바 디아나 씨의 대표 선서가 끝나자, 본격적인 국적증서 수여식이 이어졌다. 호명된 후손이 한 사람씩 단상에 올라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증서를 건네받고, 가족, 친지들과의 기념 촬영이 이어졌다. 꽃다발을 건네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는 지인들, 국적증서를 바라보며 함박웃음을 짓는 가족들로 행사장은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국적증서가 수여된 후에는 독립유공자 차도선 선생의 후손인 김예정 양이 소감을 발표했다. 차도선 선생은 ‘뛰는 흥범도, 나는 차도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독립군으로 1907년 흥범도 장군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무장항일 투쟁을 지속한 인물이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후원하기도 했으며, 1919년에는 독립군을 모집, 훈련시켜 국내 진입 계획을 세운 공로로 1962년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9살 때 한국에 와서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 된 김예정 양은 “하늘나라에서도 발전된 조국을 지켜보면서 기뻐할 할 아버지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1920년대 쿠바지역의 한인사회 지도자로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임천택 선생의 후손, 앤 림 펜잔 안토니오 씨도 소감을 밝혔다. 임천택 선생은 쿠바에서 자금을 모집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했으며 1997년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2021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에 입국한 안토니오 씨는 “증조할아버지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해 주고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신 대한민국에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증조할아버지의 희생과 한국 정부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할 예정

이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축하하기 위한 군악대 공연이 이어졌다. ‘단지동맹’과 ‘그날을 기억하며’, ‘내 나라 대한’ 등 뮤지컬 ‘영웅’의 OST 2곡과 송소희의 노래가 멋들어진 남성 4중창으로 무대가 가득 채워졌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립을 열망하는 독립유공자들의 간절함과 비장함이 절절히 느껴진 웅장한 공연이었다.

축하공연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 회장 등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기념 촬영을 끝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후손들은 지인들과 함께 국적증서 수여의 기쁨을 나누며 웃음과 행복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의 마무리를 장식해 주었다.

법무부는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392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대한민국 국적 부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한 일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보훈부 및 대검찰청(과학수사부)과의 공조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며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하고 국적을 부여하는 등 독립유공자 후손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K-직장인은 처음이라 즐거울 수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출입국 이야기!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한 사회초년생에게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어떤 직업일까?  
K-직장인 준비생을 위해  
출입국 직원이 직접 나섰다!  
청년인턴, 근로장학생과 함께하는  
출입국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 | 김진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근로장학생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속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활동했습니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되고 싶어 경험을 쌓고자 지원했는데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출입국관리직이 그저 출국과 입국을 위한 문을 지키는 직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출입국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첫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님이 해주신 '국경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출입국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해 줄을 나누거나 외국인들의 입국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요. 단순 업무라 쉽게 생각했지만, 조금만 실수하면 대기 줄이 밀려 시간과 체력이 낭비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승객들을 정신없이 안내하고 나면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승객들과 바쁜 와중에도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직원분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다양한 업무를 해보지는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공항 경찰이라는 꿈을 다시 생각해 볼 정도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주변에 출입국관리직 준비를 고민하는 친구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청년인턴 김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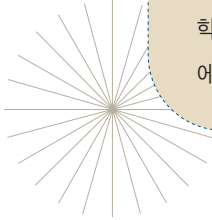
저는 올해 6월부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던 동안 좋은 기억이 많아 꼭 다시 이곳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출입국 청년인턴 모집공고를 보게 되어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국 기관은 재한외국인의 체류 업무부터 사범 처리, 보호, 단속, 심사 등 다양한 일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정말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체류외국인이 많아진 만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것도,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는 보호외국인 면회 업무만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단속 업무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출입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 장유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청년인턴

올해 6월부터 출입국기획과 국제협력·홍보팀 소속으로 주무관님들을 도와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을 전공하며 쌓은 지식을 조금이라도 활용해보고 싶어 출입국 기관에 지원하게 됐는데요. 출입국 기관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다들 제가 인천공항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본부에 들어오고 나서 출입국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인턴 기간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민정책포럼을 열어 본부장님과 직원분들을 모시고 이민 정책에 대한 인턴들의 의견을 발표했던 일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 부담이 컸지만 이민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 다른 인턴분들과 의기투합하여 준비하다 보니 아주 돈독해졌어요. 직장 생활이 처음인 저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사회초년생분들은 꼭 출입국 기관 인턴이나 근로장학생을 신청해 보세요. 전국 출입국 관서에서 우리나라 출입국·이민정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인생에 다시 없을 귀중한 경험이 되리라 장담합니다.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유동규 주무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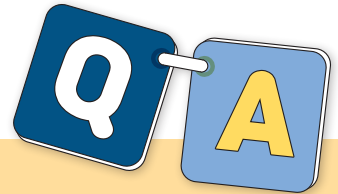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 차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입니다. 체류 업무를 거쳐 지금은 실태조사와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범 처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외항사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데요. 우연히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적성에 맞겠다는 생각에 수험기간을 거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시절에는 '출입국관리직'이라고 하면 공항에서 심사하거나 사무소에서 민원 응대하는 모습만을 떠올렸는데요. 실제 공직에 들어와 보니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출국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필요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매력적인데요. 통가, 불가리아 등 평소 만나기 힘든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박 심사 업무를 해보며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을 상대하는 업무 특성상 외국어 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요. 외국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도전해보세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만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험기간이 외롭고 고되지만 스스로를 믿고 끈기있게 공부해 나간다면, 꿈꾸던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취준생, 공시생 여러분!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파이팅하세요~!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예린 주무관 |



저는 2021년에 입사하여 현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의 꽃이라 흔히들 말하는 체류 업무를 맡아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 등을 처리하고 있어요.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가족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직렬을 선택할 때는 실제로 공항에서 보았던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에 관심이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직에 대한 정보가 주로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공항에서 일하는 이미지만 생각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출입국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반대했습니다. 대학에서 함께한 유학생, 파트타임을 하며 만난 외국인 친구 등 일상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출입국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제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집니다.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되려면 외국어 능력이 필수라고들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외국어에 자신이 없어 출입국 지원을 망설였지만, 출입국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기에 월등한 외국어 실력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며 출입국관리직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 Q.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국가공무원이에요. 공항만에서는 내·외국인 출입국심사를 하고 출입국사무소로 주로 알려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는 비자, 국적, 사회통합 등 외국인 체류관리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업무를 하죠.

### Q. 공항에서 입국할 때 세관 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인가요?

A. 많은 분이 공항에서 근무하는 관세직 공무원의 업무와 혼동을 하는데요. 세관에서는 국경을 넘어오는 물품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공항만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출입국자와 관련한 업무를 합니다.

### Q.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교대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A. 모든 직원이 교대근무를 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공항만에서 근무하는 출입국 심사관은 야간근무도 해야 하므로 교대근무를 해요. 공항만에서도 일부 부서는 업무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 Q. 근무할 때 정해진 복장을 착용해야 하나요?

A. 출입국관리직은 제복을 착용하는 대표적인 공안직 공무원이에요. 공항에서 근무하는 출입국심사관이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민원실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 Q. 외국인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려면 외국어에 유창해야 하나요?

A. 공채 시험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 절차 이외 별도 외국어 구사 능력을 채용 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력 채용 절차를 통해 언어 특기자를 선발할 경우 일정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죠.

### Q.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채용 일정도 궁금합니다.

A.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공개채용(공채)과 경력채용(경채)을 통해서 선발하는데요. 공채는 인사혁신처의 시험일정에 따라 국가직공무원(7급 또는 9급) 채용시험을 통해 진행됩니다.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경력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등에 따라 채용이 진행되며 부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 2024년 상반기에 출입국관리직 9급 경력경쟁 채용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 나의 인생을 바꾼 한국어

## 카자흐스탄 출신

### 바이마간베토바 딜바르

나는 2014년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유라시아 국립 대학교 동양학과에 입학했다. 입학이 결정되고 얼마 뒤, 친구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공부할 기회가 있다며 함께 배워보자고 해서 호기심에 수업을 들었다. 당시 나는 동양학과에서 중국학을 선택했지만,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서도 모를 정도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나는 한국어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국어 발음 하나하나가 내게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세상에 이런 언어도 있구나.' 한국어에 매료된 나는 그날로 학과장님을 찾아가 전공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미 개강한 상태에서 전공을 바꾼 전례가 없었기에 전공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 전공을 바꾸었고, 한 학기 후에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어렵게 듣게 된 한국어 수업이었지만, 처음에는 진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벅찼다. 당시 나는 간단한 대화만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과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글짓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뛰어났다. 수업 시간 내내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몰랐던 적도 있었다. 두 달 가까이 나는 교수님의 질문에 '네, 아니면 '몰라요'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어 교수님들이 농담으로 '몰라요 학생'으로 부르기도 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싶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다른 친구들은 쉬면서 놀러 다니는 여름에도 따로 학기를 신청해 3~4시간만 자면서 한국어를 공부했다.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놀지 않는 한국어 실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울기까지 했지만, 한국어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열정이 생겼고, 한국을 더 많이 알고 싶어졌다. 그 결과, 나는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되었고, 여름방학 때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있어 부모님은 나의 한국행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감염병의 위험이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꼭 방문해보고 싶었다. 결국 끝까지 부모님의 반대의견을 숨겼고, 크게 혼이 났지만, 한국은 방문할 수 있었다.

꿈에만 그리던 한국에서의 여행은 환상적이었다. 한국에서 직접 한국어를 듣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상상도 못 했던 멋진 여행을 즐겼다. 여행을 마친 후, 나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고, 한국어를 넘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로 돌아온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한국 영화와 한국 사극 드라마, 한국 예능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한국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 2024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World Korean Educator Conference 2024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 멋지다는 것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세종학당재단  
Kong Seong Institute Foundation



# World Korean Educator Conference 2024

받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했다. 더불어 내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인들이 많지 않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아서 나라 곳곳을 돌아다녔다. 도시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에 한국 선수들이 오면 자원봉사자로 일했고, 한국 관련 행사는 모두 쫓아다녔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통역 봉사를 하면서 그 두려움은 많이 줄어들었다.

첫 번째 한국행을 다녀온 뒤에도 꾸준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TOPIK 시험에도 계속해서 도전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TOPIK 5급을 따게 되었는데, 문화원에서 TOPIK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으로 선발되어 또다시 한국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첫 한국 여행과 달리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했기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한국 문화는 한옥이었다. 세세한 부분에도 정성을 기울여 만든 한옥은 아주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국 특유의 가치를 표현한 건축물이었다. 한옥을 바라보며 나는 한국인들은 행복이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 한국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나는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당시 세종학당에서는 학기별로

우수상을 받는 학생들에게 문화원 로고가 그려진 가방을 주었다. 나는 이 가방이 너무 받고 싶어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의 최우수상과 두 번의 우수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품이 바뀌어 끝내 가방을 받지는 못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 진학할 무렵, 내가 학생이었던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현지 교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밤새도록 면접 준비를 한 끝에 나는 현지 교원에 합격해 세종학당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로 나는 한국어 교원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 그동안 내가 한국어 공부를 했던 방법을 응용해 예능에 나오는 게임들을 수업 시간에 활용했고, 이 방식이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았다. 결국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24년 세계 한국어교육자대회에서 외국인 교원으로는 처음으로 '최우수 한국어 선생님'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나는 항상 한국어 수업에 처음 들어간 날과 세종학당에서 처음 면접을 보고 선생님이 된 날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 역시 한국어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 출입국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내·외국인 승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출입국심사제도를 소개한다.



##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외국인

### 시행 배경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동반가족, 영주자격  
소지자의 출입국 편의와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확대 분위기 조성

### 대상



- 결혼이민자(F-6) 및 동반가족
- 재외동포
- 영주자격(F-5) 소지자

### 이용방법



국민입국심사대에서 심사 진행  
※동반가족은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자녀  
에 한하며, 재외동포는 여권상의 인적  
사항 등을 통해 동포임을 추정할 수 있  
어야 함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안내

법무부는 승객의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를 활용해 자동화기기로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01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① (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사전등록 불요)
  - ② (외국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불요)  
\* 만 7세 이상 만 17세 미만 국민 및  
외국인은 사전등록 필요
- ※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한  
만 17세 이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출국 시 이용 가능



### 02

## 사전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는?

- ① 만 14세 이상 사전등록 신청자
  - 직접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② 만 7세 이상 만 14세 미만 사전등록 신청자
  -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 등록
  - (국민) 3개월 이내 발급한 신청인의 상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신청인과 법정 대리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Smoother Immigration Procedures

Here are some tips for enjoying smoother, more convenient immigration procedures being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 Foreign Nationals Eligible to use the Entry Lane for Korean Passport Holders

- ① Marriage migrants(F-6 visa holders) and thei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 ② Overseas Koreans
- ③ Permanent residents(F-5 visa holders)



## Smart Entry Service(SES)

The SES is an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ystem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uses passengers' passports and biometric data for processing both entry and departure.

01

### Eligible Individuals

- ① **(Korean National)** Those aged 17 and older who hold a national ID card (Prior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 ② **(Foreign National)** Those aged 17 and older who are registered or have reported domestic residence(Prior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 Prior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those between 7 and 16.

※ Foreign tourists aged 17 and older who provided their fingerprint and facial image information during entry inspection are eligible to use SES upon departure.



02

### Prior Registration Procedures & Required Documents

- ① **Applicants aged 14 and older**
  - Visit an 'SES Enrollment Center'
  - Passport(common requirement), residence card or domestic residence card
- ② **Applicants aged 7 and under 14**
  - Required to be accompanied by a legal guardian
  - **[Korean National]** Detailed basic certificate,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of the applicant issued within the last 3 months, legal representative's ID
  - **[Foreign National]** Documents provi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legal representative(birth certificate, etc.), legal representative's ID

#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Autumn Vol. 69



## 법무부 장관, 출입국심사 정책홍보 진행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9월 4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를 홍보하였다. 박성재 장관은 자동출입국 심사대 및 국민 심사대 이용 대상 안내 등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임 본부장 취임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16일 배상업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임명하였다. 배상업 본부장은 다양한 이민 행정 분야에서 정책 수립과 실무 현장을 두루 경험한 출입국·이민행정 전문가로, 엄정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한 비자 제도 개선 등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

법무부는 금년 9월부터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해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 교육을 시행한다.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으로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8월 13일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비자 등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정식 시행, 계절근로자 확대 등 주요 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건의사항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 직원 대상 출입국 현장투어 실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9월 12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 업무현장 투어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투어에 참석한 직원 17명(청년인턴, 영문메디터, 국가정황조사관 등)은 자동출입국심사, 현장감식, 입국재심, 상황실 등 다양한 출입국심사 현장을 체험하며 업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 11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개 기관(인천공항,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전)에서 올해 마지막 출입국 현장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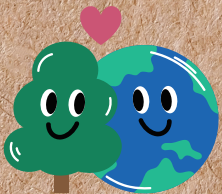
이민자 멘토단이 알려주는

한국생활 필수 정보

내가 만든 쓰레기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 아시나요?

#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에코센터에서 배워보세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분리배출을 잘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재한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환경과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쓰레기 분리배출! 헛갈리기 쉬운 한국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살이 12년 차 프랑스 파리에서 온 신시로가 아이마라 캐서린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작년엔 서울시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그린 & 청소년회의 설립'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만큼 적극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쓰레기 분리배출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 하나뿐인 우리의 환경을 위해 잘 버리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오늘 저와 함께 화성시환경재단 에코센터에서 확실하게 배워보시죠~!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을 진행하는 화성시의 대표 환경교육 기관입니다. 국내 최초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제안과 행정의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진 환경교육 기관으로 쓰레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환경전시실 관람과 목공체험, 환경 인형극 등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방문해주세요~!

### 화성시환경재단 에코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쓰레기란?



쓰레기는 사람이 생활 또는 사업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건이나 물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버리게 되었을 때, 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배출되는 곳에 따라 크게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업장 쓰레기는 법에 의해 구분되어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생활 쓰레기는 가정이나 사무실, 학교 등 생활공간과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로 구분됩니다.

# 01 쓰레기 구분하는 법

쓰레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종류가 다양합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버리는 쓰레기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쓰레기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종류에 따라 버리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종류는 꼭! 구분해 주세요~!

- 재사용·재활용 가능 여부
- 타는 쓰레기는 소각용 봉투 활용
-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용 봉투 활용
- 음식물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거나 음식물 봉투 활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전용포대 사용
- 가구 및 대형 폐기물은 배출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02 헛갈리기 쉬운 일반쓰레기 & 재활용 쓰레기

##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알약 포장재, 칫솔·문구류, 코팅지, 영수증, 테이프 붙은 박스, 컵라면 용기, 과일 완충재, 사기, 내열유리, 거울, 도자기, 이물질 묻은 종이빨대, 종이컵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니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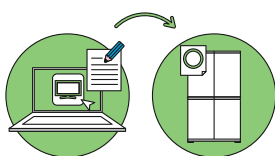
##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종이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는 분리배출 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배출 시 헛갈릴 땐 바코드 주변의 이 표시를 살펴보고 배출해 주세요.

##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읍면사무소 등에서 구매한 별도 스티커를 꼭 부착하여 배출해 주세요.



## 폐가전 제품 처리방법

대형 폐가전은 수거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방문하여 수거해 줍니다. PC, 제습기, 전기밥솥, 헤어드라이어 등 작은 가전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해 주세요.

※ 콜센터: 1599-0903, 모바일: 15990903.or.kr  
취급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03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① 투명 페트병을 많이들 플라스틱으로 구분해 버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2020년부터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무색의 투명한 생수나 음료 페트병을 말합니다. 식용유나 양념류, 워셔액이나 손세정제, 커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투명 페트병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으로 구분됩니다.

②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할 때는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 후, 부피를 줄이기 위해 페트병을 압축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화성시환경재단 에코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 배출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에서 높은 온도로 태워 소각하고, 땅에 묻어 서서히 분해되도록 합니다.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는 또다른 종이팩으로, 유리병으로, 투명페트병으로 재활용됩니다.

**Q** 폐건전지, 우유팩은 어떻게 버리나요?

**A**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건전지, 우유팩을 수거해 새 건전지 및 휴지로 교환해 줍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에서 분리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화성시에코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A** 화성시에코센터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화성그린환경센터(소각장) 견학과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어디에서 환경교육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에코센터 홈페이지(<https://www.hs-ecocenter.or.kr/>)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성시환경재단에서 진행하는 생태환경교육은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합검색창: 화성시환경재단 또는 반석산에코스쿨 검색

**Q** 안 쓰는 물건을 팔거나 중고물품을 교환하고 싶은데 그런 곳이 있나요?

**A** 화성시 재활용센터 중고물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중고물품을 접수하면, 이를 재사용 가능하도록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접수하시면 상태와 품목에 따라 금액을 책정 후,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소형가전, 유아용품(유모차, 장난감),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위치는 봉담읍행정주민센터별관 1층이며, 운영시간은 월~토 9:30 ~ 17:30 입니다.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화성시 재활용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 체험, 홍보 활동을 통해 환경 인식을 높이고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예약할 수 있으며, 생애·환경·체험을 주제로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재한외국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 에코센터부

권민혜 과장



포교를 위해  
한반도 땅을 밟은  
선교사들의 흔적  
순천선교부 거리



SUNCHEON-SI MAESANDEUNG

선교사는 포교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는 종교인을 뜻하는 단어다. 본래 가톨릭 수도회인 예수회에서 신대륙과 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성직자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위해 파견되거나 자진해서 떠나 활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혼란이 극에 달한 한반도에는 포교를 위해 머나먼 이국땅을 찾은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양반 고장, 순천에는 70명 이상의 선교사가 오가며 근거지로 활용한 순천선교부가 있었다. 1910년 설립된 순천선교부로 인해 순천 매곡동 일대의 땅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다. 100여 년 전, 포교를 위해 한반도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리, 순천 선교부 거리를 소개한다.



**성경학원에서 진료소로  
‘조지와츠 기념관’**

1913년, 미국 남장로회가 현지인을 교회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보통성경학원이다. 순천선교부 설립을 위해 재정을 지원했던 조지 와츠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붙였다. 성경학원을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생을 마친 인돈 선교사 부부가 기독교진료소를 세운 장소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미군정 때는 군정사무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지금도 1층은 순천기독교진료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순천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건립 당시의 모습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 건물이다.

- 문의 : 061-752-2074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매산길 11

##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뛰어놀았던 '순천선교부 외국인어린이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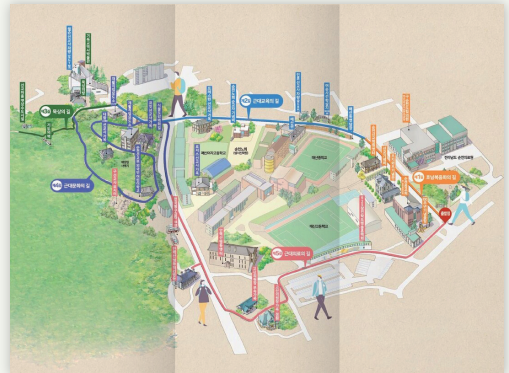
1910년대 세워진 외국인어린이학교다. 순천선교부가 들어서면서 선교사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성경학교로 건립되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 가옥이 정면 중앙에 출입구가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인어린이학교는 건물 정면 우측에 현관 포치가 위치해 있다. 정교한 벽돌쌓기 방식으로 조성된 건물로 당시 전남 해안 지역 선교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 현재는 여수애양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별다른 용도 없이 비어 있다. 세월의 흐름에 많이 남아버렸지만, 원형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과거 이곳에서 뛰어놀았을 선교사 자녀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매산길 53



### 순천 매산등 성지순례길 조성

순천은 순천선교부가 있었던 매산등 일원을 매산등 성지순례길로 조성하고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산등 일원은 1913년 미국 남장로교 순천선교부가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을 위해 학교와 병원, 교회를 건립하면서 전남 동부권 기독교 요람이자 근대 의료와 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했던 장소다. 순천은 호남기독교 100년 역사와 110년 순천선교부 역사를 체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성지순례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육시설  
'매산중학교 매산관'**

1910년에 건립한 순천선교부의 학교 건물이다. 선교 목적으로 설립한 교육시설로 처음에는 '왓츠 기념 남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930년에 기존 교사를 철거하고 지금의 석조 건물을 신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벽은 순천과 옥천 지역 일대의 화강석을 사용했으나, 내부 장식 재료는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했다. 개교 당시에는 순천매산학교로 불렸던 이곳은 1937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되었고 일본인 교사의 손을 거쳐 1946년부터 다시 매산중학교 건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매산중학교의 여학실과 공용실, 역사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문의 : 061-755-1277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매산길 23



**순천선교부 대표 선교사**

순천선교부에는 포교에 인생을 바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다. 남장로교 개척 선교사이자 순천에 처음으로 방문해 호남지방 복음의 아버지로 불리는 레이놀즈(한국명: 이눌서) 선교사는 물론이고, 순천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는 오웬(한국명: 오기원) 선교사도 있다. 그의 뒤를 이어 순천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이어나간 존 프레스톤 (한국명: 변요한) 선교사는 한국에서 37년 동안 생활하면 순천 복음화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이다. 순천기독교진료소에서 결핵 환자를 치료했던 유진 벨 선교사와 휴린트(한국명: 인후) 선교사, 프레스톤 선교사와 함께 순천에 터를 잡고 선교와 교육 활동에 매진한 코잇(한국명: 고라복) 선교사도 유명하다. 이 외에도 순천선교부 거리에는 순천과 한국의 평화, 행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수많은 선교사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소식을 만나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 #1

독립 영웅의 후예 27명, 대한민국 국민이 되다.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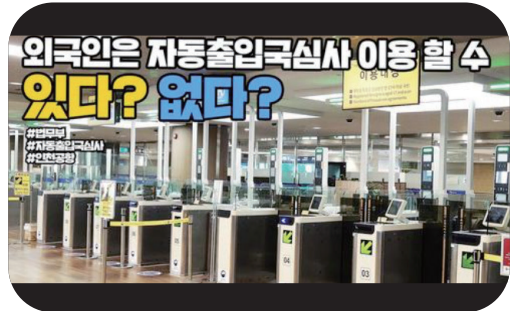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14명의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SNS 채널을 소개합니다. 공식 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톡에서 본부와 출입국·외국인 정책 소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 #2

출입국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 편리해집니다.

YouTube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 심사제도를 소개합니다~!

페이스북



@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카카오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 카드뉴스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 ‘KIS 1345’로 물어보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려드려요

**Q** 저는 한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하고 출국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면 비행기 출발 몇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나요?

\* 출국일 기준 3일~15일 전 온라인 hikorea.go.kr 사이트에서 자진출국 사전 신고 후 출국 당일에 공항만에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함

**A** 범칙금 부과 내용, 납부에 따른 입국금지 감면 등 안내 및 사범심사 시간이 소요되므로 항공기 출발시간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사무소에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저는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입니다. 업무 상 해외 출장이 많아 인천국제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항상 입국심사를 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한국인들이 자동심사대로 빠르게 입국하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외국인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나요?

**A** 한국인 승객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를 한 만 17세 이상 체류외국인이라면 사전등록 없이(만 7세 이상 ~ 만 16세는 사전등록 필요)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관광객들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입국할 때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만 17세 이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출국할 때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

**Q** 저는 국민인데요. 항상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계획인데 별도 등록 없이 새 여권을 이용하면 되나요?

**A** 구여권으로 자동출입국을 문제없이 이용했던 국민의 경우 여권변경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등록 후 자동심사대를 이용했던 사람(만 7세 이상 ~ 만 16세)은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보호소로 지인 면회를 가려고 합니다. 면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면회를 예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보호외국인 면회는 평일 오전 9:30~11:30, 오후 13:30~16:30에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외국인과의 면회 시간은 30분입니다. 보호외국인 면회를 위한 사전예약 제도는 운영하지 않으며, 정해진 면회시간에 방문하여 면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재한외국인의 행정·생활정보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시간 : 평일 09:00~22:00 (한국어 포함 20개국 안내 / 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

### 대표전화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로 연결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Autumn  
Vol. 69

EVENT #1

### 1. <공존하는 시선> 공모

<공존>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사진과 함께 사진 설명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선정을 통해 <공존하는 시선> 코너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 참여 기간** 2024년 10월 1일(화) ~ 2024년 11월 15일(금)
- 참가 대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귀화자 포함) 누구나 가능
- 공모 주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귀화자 포함)이 바라보고 느낀 한국의 전통 또는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한 사진(풍경, 인물, 사물 모두 가능)  
※ 타인 사진(작품) 제출에 따른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인물사진은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사전동의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작품) 사진 파일(JPG파일, 가로 300dpi 이상, 고화질 우대)  
(추가정보 기재) 이름, 연락처, 작품 제목 및 설명, 촬영 날짜
- 참여 방법** kimonkey@hanmail.net / <공존> 편집실
- 당첨자 발표** 2024년 11월 18일 개별 통보
- 이벤트 혜택** 2024년 <공존> 겨울호 '공존하는 시선' 코너 게재 및 소정의 상품 지급

EVENT #2

### 2. 독자 의견

2024년 <공존> 가을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참여 기간** 2024년 10월 1일(화) ~ 2024년 10월 18일(금)
-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글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품 이벤트** 독자 의견을 주신 분들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4년 10월 23일(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 #3

### 3. 퀴즈 타임

QR코드를 스캔해 퀴즈 정답을 맞춰주세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 다음 중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이 아닌 사람은?

- ① 외국인등록을 한 만 17세 이상 외국인
- ②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만 10세 아동
- ③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한 단기체류 외국인
- ④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 국민

**빠르고 간편한 독자 퀴즈 참여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공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제11회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 한마음 걸기축제

정부합동  
고충상담

11th Walk Together Festival

참가자 사전접수 홈페이지

Website for applying in advance

2024. 10. 20.(일) 09:00~13: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옆 양천공원,  
안양천 일대

Yangcheon Park next to  
Seoul Immigration Office,  
Anyangcheon (Anyang streams)



걸기

Walking

고충상담

Counseling

건강의료진료

Medical  
examination

축하공연

Performances

음식 부스

Food tasting

대상

국내 거주 내·외국인 (약 1,000명)

Participants

Local and foreign residents

내용

축하공연, 걸기축제, 건강캠프(의료진료), 정부합동 고충상담, 세계음식 부스, 경품추첨 등

Programs

Celebratory performances, Walk, Medical examination services, Government-sponsored counseling services, International food booths, Prize drawing etc.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